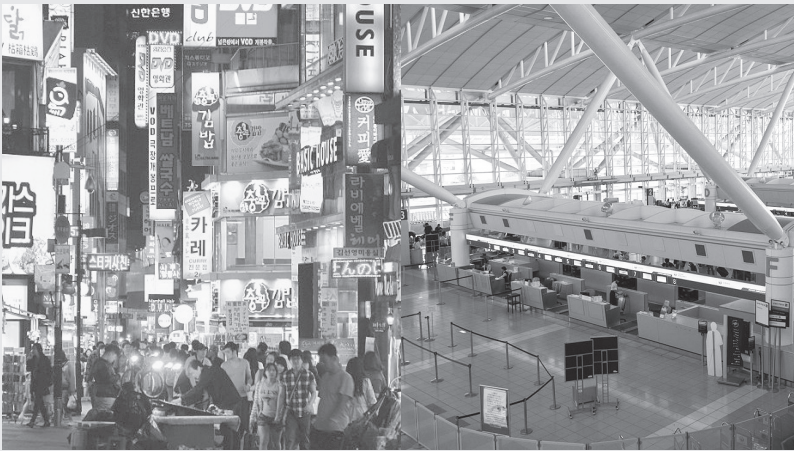


4/ 한일관광 변화와 전망:

일본수출규제에서 코로나19 확산까지*

조아라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았던 명동과 방일 한국 관광객의 주요 관문이었던 후쿠오카 공항

출처: Keneckert, www.wikipedia.org, Chihaya Sta, www.wikipedia.org

조아라(趙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HK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업적으로는 『관광으로 읽는 홋카이도: 관광산업과 문화정치』(201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ost-tsunami Recovery and Reconstruction: Governance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Disasters, 2014), 「일본 관광정책 분석과 시사점: 아베시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 2018)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본연구(조아라, 『일본 관광시장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를 토대로, 2020년도 일본연구소 발전기금(위임기금-통보 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https://doi.org/10.291514/ILBI.2021.24.112>

1. 서론

2019년 한국은 국민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 방한 외국인 2,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일본은 방일 외국인 3,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관광입국 정책을 추진하며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가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국경이 감염병으로 인해 폐쇄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관광여행은 거의 전년대비 80~9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그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바로 직전 한일 관광교류는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감소로 전환되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였고,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발표 등 외교 갈등 속에서 한일갈등이 격화되었다. 과거에도 한일 관계가 악화된 적은 있었으나, 이번 갈등은 특히 경제영역을 넘어서 ‘관광’ 영역으로 확산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일본 아베(安倍晋三) 전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제한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였고, 한국인의 일본 불매운동은 ‘일본여행 가지 않기’ 운동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 비자제한 조치는 2020년 3월 5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계기로 단행되었으며, 한국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3월 9일 일본인 비자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양국 간의 관광여행 교류는 급감하게 되었다. 3월 23일 WHO의 펜더믹 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일본 역시 3월 25일 전 세계에 대한 위험경보를 내리면서 해외여행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한일 관광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영향은 양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2. 한일 관광행태 변화 특성: 일본 수출규제 이전 상황(2000~2018)

1) 한일 관광 교류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관광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은 바로 그 전 시기 한국인의 방일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므로,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0년대 이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998년 한일 대중문화개방,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함께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방한 일본인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NHK <겨울연가> 방송을 계기로 형성된 한류 붐으로 한국여행의 이미지는 크게 반전된다.¹ 다만 2012년 이후는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인의 해외여행 정체와 더불어, 2012년 이후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방한 일본인의 증가율은 둔화되었다.²

한편 방일 한국인은 세계 금융위기(2009년) 및 동일본대지진(2011년)이 발생한 해 외에는 전반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2년 이후 엔저에 힘입어 방일 여행의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결과적으로 2000년까지는 방한 일본인이 방일 한국인의 두 배 정도 많았으나, 2018년에는 방일 한국인이 750만 명을 기록하며 방한 일본인 300만보다 두 배 이상 격차를 벌리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일 관광교류에서 호스트(host)와 게스트(guest)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역전으로 양국 국민이 관광을 보는 관점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양국 관광정책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전후 일본에서 관광정책은 「관광기본법」³에 따르면, 국내여행으로 지역 격차의 시정에 기여하고⁴ 해외여행으로 무역흑자로 인한 외교갈등을 완화

1 조아라, 『일본 관광시장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2 이강욱, 『국제관광수요 영향요인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에 따르면, 2012년 한일외교 갈등 당시에는 방한 일본 관광객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배경에는 환율, 외교관계,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3 일본에서 「관광기본법」은 1963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12월 「관광입국추진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4 일본에서 1963년 제정된 「관광기본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의 관광정책 목표는 관광이 국제수지 개선 및 외국과의 경제문화 교류 촉진, 국민의 보건 증진, 근로의욕 증진 및 교양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관광정책의 목표는 2003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관광입국 선언 이후 크게 전환되어,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⁵ 일본인의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이 정체를 보이는 한편,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은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경제대책의 주요수단’으로 간주되었다.⁶

한편, 한국에서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으나, 그 주요 목표시장은 해외여행시장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중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18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여행업 등 관광산업은 한편으로는 급증하는 해외여행객을 위한 여행업의 성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가 제기되고 있었다.

감안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 촉진, 관광여행 안전 확보, 관광자원의 보호, 육성 및 개발, 관광에 관한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국제관광 발전 및 국민의 건전한 관광여행 보급 달성을 꾀하고, 이로써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 안정향상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격차의 시정에 기여”(제1조)하는 데 있었다(조아라 외, 『한일 국제관광 정책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5 이러한 전환은 2006년 기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제정된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광입국을 실현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함을 감안하여, 관광입국 실현에 관한 시책에 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광입국의 실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입국 실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이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제상호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밝히고 있다.
- 6 후술하듯이, 이러한 관광정책 환경의 차이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는 관광정책의 목표가 ‘긴급 경제’대책이자 ‘지역경제’ 대책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해 ‘Go To Campaign’을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2〉 방일 한국인 및 방한 일본인 수 추이: 2005~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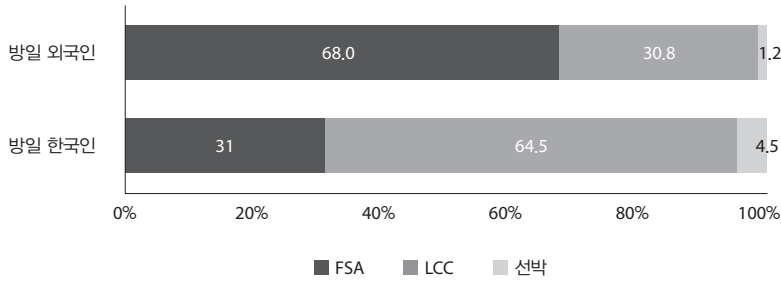
연도	방한 일본인		방일 한국인	
	여행객 수	증감률	여행객 수	증감률
2005	2,440,138	-0.1	1,747,171	10
2006	2,338,921	-4.1	2,117,325	21.2
2007	2,235,963	-4.4	2,600,694	22.8
2008	2,378,102	6.4	2,382,397	-8.4
2009	3,053,311	28.4	1,586,772	-33.4
2010	3,023,009	-1.0	2,439,816	53.8
2011	3,289,051	8.8	1,658,073	-32.0
2012	3,518,792	7.0	2,042,775	23.2
2013	2,747,750	-21.9	2,456,165	20.2
2014	2,280,434	-17.0	2,755,313	12.2
2015	1,837,782	-19.4	4,002,095	45.3
2016	2,297,893	25.0	5,090,302	27.2
2017	2,311,447	0.6	7,140,438	40.3
2018	2,948,527	27.6	7,538,952	5.6
2019	3,271,706	11.0	5,584,597	-25.9
2020 8.	426,816		478,800	

출처: 방한 일본인은 관광자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방일 한국인은 'JNTO 訪日外客統計'.

2) 방일 한국인 여행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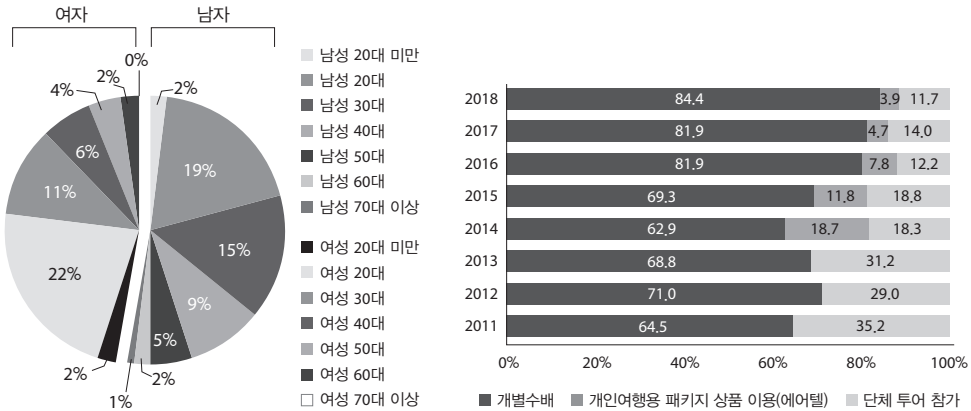
한일 양국의 관광수요 및 관광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호 관광객의 여행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일 한국인의 여행행태는 일본 관광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일 외국인 소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가능한데,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인의 여행행태는 단기간 LCC를 이용하여 개별여행으로 가볍게 다녀오는 행태로 요약 가능하다.

일본여행수요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대가 견인하고 30대가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여행 지출액은 체류 기간이 짧은 관계로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쇼핑비는 방일 외국인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



〈그림 1〉 방일 한국인 이용 교통수단

출처: 観光庁, 『訪日外国人消費動向調査』, 2018



〈그림 2〉 방일 한국인 연령대 및 여행유형

출처: 観光庁, 『訪日外国人消費動向調査』, 2018, 2019.

하다. 이러한 행태는 한국인에게 일본여행은 ‘특별한 해외여행’⁷과 ‘익숙한 국내여행’의 중간 어느 지점에 해당됨을 시사한다. 방일 한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블로그나 SNS에서는 일본 지방의 여행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일본여행에 대한 심적 장벽이 완화된 측면도 크다.⁸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2018에 따르면, 한국인의 해외여행 경험률은 22.4%이며, 특히 20대의 경험률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국민 4명 중 1명이 해외여행을 경험함에 따라 해외 여행은 보편적인 여가 중 하나가 되었다.

8 조아라·김형중, 『국민의 해외여행 동향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에서 실시한 FGI 조사에서는 일본여행 경험자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여행장벽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표 3〉 방일 한국인 주요 여행 행태

구분	주요 내용
일본여행 추이	• 10년간 약 3.2배 증가(2008년 238만 명 → 2018년 754만 명) • 특히 20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 30대 견고 - 20대 여성 2011년 14.1% → 2018년 22.2% - 20대 남성 11.3% → 19.4% - 30대 여성 11% 내외, 30대 남성 15.5%
일본여행 행태	• 가볍게 짧게 다녀오는 행태(체류일수 평균 3.2일로 짧은 편) • 친구(33%), 가족 및 친척(32%)과 더불어 혼행(16.2%)도 많음 • 계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여름 휴가철 집중 구조 아님) • 재방문 비중 높은 편(71.2%)
여행 상품 이용	• 개별여행 대부분, 항공 및 숙박은 온라인으로 예약, 결정 기간 짧음 • 여행형태: 개별여행 84.4%, 단체투어 11.7%(2011년 35.2%) • 상품예약: 80.4% 웹사이트 이용 • 구매 시기: 1개월 이내 41.7%로 예약 시기 짧음 • 숙박: 호텔(75.5%), 공유 숙박(9.8%), 료칸(9.4%) • 항공: LCC를 주로 이용, LCC 노선 증가가 방일 여행으로 이어짐
여행지출	• 1인당 일본체류 중 지출액은 7만 8,000엔으로 낮은 편(방일 외국인 평균 15만 3,000엔) • 30대의 지출액이 가장 많고,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출액도 증가
지역방문	• 방문 지역은 긴키지방(33.6%)과 규슈지방(30.9%)에 집중 • 오사카부, 교토부,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도쿄도, 지바현, 홋카이도, 오키나와현 등 방문율 높으나, 그 외 지역 방문율은 낮은 편임
여행활동	• 일본음식(98.4%), 쇼핑(83.5%), 변화가 거리 산책(71.1%), 일본 술(61.6%), 자연·경승지 관광(52.6%), 온천입욕(32.4%) 순

출처: 조아라·김형중, 『국민의 해외여행 동향 분석』.

일본여행의 재방문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인데, 한편 방문 지역은 긴키 지방과 규슈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긴키지방과 규슈지방이 한국과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점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의식으로 여행 지역이 일본의 서쪽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후술하겠으나, 이러한 지역적 방문 편중은 일본수출규제 이후 방일여행 감소는 한국인의 방문이 많았던 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3) 방한 일본인 여행

방한 일본인 여행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혼자 또는 2명의

〈표 4〉 방한 일본인의 방한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균
일본	26.3	15.1	8.8	49.9	7.5
전체	41.7	17.3	11.0	30.0	4.3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

〈표 5〉 방한 일본인의 권역별 방문권역

(단위: %, 중복응답)

	서울	경상	경기	제주	인천	강원	충청	전라
전체	76.4	16.8	14.9	9.9	8.0	7.8	4.1	3.2
일본	72.7	18.3	7.8	1.9	2.3	1.3	3.3	1.6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외래관광객조사」.

〈표 6〉 방한 일본인 주요 여행 행태

구분	주요 내용
한국 여행 추이	• 2012년 이후 감소 및 정체, 2015년을 저점으로 회복 추세 - 10~30대 회복률이 높음 - 20대 2015년 2.59% → 2019년 5.29%
한국 여행 행태	• 재방문 비율 높음(4회 이상 49.9%) • 동반자 있음 80.3%, 평균 2명 - 친구 48.1%, 가족친지 39.1%, 직장동료 13.3% • 평균 2.8박으로 단기 체류 중심(전체 방한여행객 평균 5.7박)
여행 상품 이용	• 한국방문선택 시 고려요인은 음식이 압도적(음식 50.4%, 쇼핑 19.3%) - 가장 만족한 활동도 식도락 관광(45.2%) • 숙박시설: 호텔 86.1% 중심(전체 방한 71.9% 호텔) • 쇼핑: 화장품 36.2%, 식료품 32.4% • 여행형태: 개별여행 63.0%, 에어텔 30.9%
여행지출	• 1인당 한국체류 중 지출액은 758.9\$로 낮은 편(방한 외국인 평균 1,259.2\$)
지역방문	• 방문 지역은 서울(72.7%)과 부산(16.1%)에 집중 • 첫방문은 80.9%가 서울 집중, 재방문은 69.8%로 감소되나, 경상도 및 경기도 외 지역 방문은 낮은 편임
여행활동	• 주요 참여활동은 쇼핑(91.8%), 식도락(88.3%), 자연경관 감상(27.2%) 순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외래관광객조사」.

여행이 많은 한편, 체류 기간도 평균 4.0일로 방한 외래객 중 가장 짧은 체류를 보인다.

일본인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758.9\$로 조사되어 외래방문객 중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방문지는 특히 서울(72.7%)과 부산(16.1%)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체류기간이 짧고, 비용도 국내여행과 차이가 없다는 점, 재방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등은 방한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한국여행은 ‘특별한 해외여행’과 ‘익숙한 국내여행’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방한 일본인의 지역이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한 일본인의 감소가 한국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일관광 변화

1) 일본 관광 부문 영향

한국인의 방일 여행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확연히 감소하게 된다. 방일 여행 자제 분위기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까지 지속되면서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방일 여행객은 중국, 태국 등에서 입국자가 증가하였고, 9월 럭비 월드컵 일본 개최 등 이벤트에 힘입어 유럽 및 북미 여행객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 여행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전체 방일 외국인 수도 감소로 전환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9월 실시한 일본수출규제 관련 국민관광 인식조사⁹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여행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3%에 달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93.2%가 압도적으로 한일 관계 악화라고 응답하고 있다.

일본여행을 취소한 국민 중 국내여행으로 전환한 비율은 43.8%이며, 해

⁹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조사 시기: 2019. 8. 23.~2019. 9. 2., ②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③ 조사 표본: 전체 응답자 1,326명, 일본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 534명.

〈표 7〉 국적별 방일 여행객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추이(2019. 7.~12.)

구분	2019							202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전체	5.6	-2.2	5.2	-5.5	-0.4	-4.0	2.2	-1.1	-58.3
한국	-7.6	-48.0	-58.0	-65.5	-65.1	-63.6	-25.9	-59.4	-79.9
중국	19.5	16.3	25.5	2.1	21.7	18.6	14.5	22.6	-87.9
대만	-0.3	6.5	14.3	9.0	11.4	3.7	2.8	19.0	-44.9
홍콩	-4.4	-4.0	23.6	6.5	19.5	19.2	3.8	42.2	-35.5
태국	-1.6	4.4	14.0	23.2	36.3	28.6	16.5	21.5	-9.2
유럽	8.3	9.3	35.4	28.5	19.6	19.6	15.5	10.7	-11.5
북미	6.4	13.4	21.3	7.5	18.1	16.2	12.8	16.8	-21.4

출처: JNTO, 「訪日外客数の動向」, 2020.

외여행 목적지를 변경한 비율은 39.2%, 일본여행을 취소하기만 한 비율은 16.8%이다. 일본여행을 취소한 이후는 국내여행으로 변경한 비율이 43.8% 인 한편, 다른 국가로 해외여행지를 변경한 비율도 39.2%로 나타나는데, 그 중 특히 베트남이 대체 여행지로 두각을 보였다. 이는 양국을 넘어서 다국 가 간의 관계 속에서 관광교류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¹⁰

방일 한국인의 감소는 일본의 인바운드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 문화관광연구원(2019)은 방일 관광객이 25만 명 감소 시 소비지출은 2조 9,000억 원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총합연구소 역시 방 일 한국인이 절반 정도 감소한다면, 인바운드 소비가 3,000억 엔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¹¹

10 이강욱, 『국제관광수요 영향요인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에 따르면, 2012년 중일 외교갈등 시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대체 효과로 인해 우리나라 인바운드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교갈등으로 인한 수요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시장의 확보를 위한 시장 다변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11 成瀬道紀, 「訪日韓国人減少でインバウンド消費が3000億円減少も」, 『リサーチ・アイ』,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 2019. 일본총합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한국인이 방일 여행자 수의 약 1/4을 점하고 있으며, 2018년 방일 한국인 여행객의 여행소비액도 5,881억 엔으로 전체 13%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년대비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면 인바운드 소비가 3,000억 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8〉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여행 취소 동향

(단위: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여행을 취소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 비율	사례 수	일본여행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적이 있음	일본여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계획임	변경하거나 취소한 적 없음		
	534	43.8	25.5	30.7		
일본여행을 취소한 사유	사례 수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변경	안전·재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태풍, 지진 등)		
	370	93.2	4.9	1.9		
일본여행 취소 이후 대응	사례 수	일본여행을 취소하고 국내여행으로 변경	일본여행을 취소하고 해외여행 국가를 변경	일본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	기타	
	370	43.8	39.2	16.8	0.3	
일본여행 대체 해외여행지	사례 수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145	29.0	17.9	17.2	15.2	12.4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민관광인식조사」, 2019.

한편, 당시 일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대만과 아세안 각국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한국인 여행객의 감소는 타 국가의 여행객 증가로 어느 정도 상충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2019년 방일 외국인 전체 규모는 2.2% 증가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증가 경향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4,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관광입국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점, 둘째, 방일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타격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나타났다는 점, 셋째, 목표시장별로 관광산업의 구조 및 관광콘텐츠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관광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도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일본 관광산업 및 관광지역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표 9〉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의 계획목표

구분	2020년까지 계획목표	2019년 실적	2015년 실적
국내여행소비액	21조 엔	21조 9,000억 엔	20조 4,000억 엔
방일외국인여행객 수	4,000만 명	3,188만 명	1,974만 명
방일 외국인여행 소비액	8조 엔	4조 8,000억 엔	3조 5,000억 엔
방일 외국인 여행자 재방문자 수	2,400만 명	2,047만 명	1,159만 명
방일 여행객 지방의 연속박자 수 (3대도시권 제외)	7,000만 명박	4,309만 명박	2,514만 명박
아시아 주요국 국제회의 개최 건수 비율	3할 이상	30.3%	26.1%
일본인 해외여행자 수	2,000만 명	2,008만 명	1,621만 명

출처: 観光庁, 「観光立国推進に関する目標と現状値」, 2020.

〈표 10〉 방일 외국인의 소비지출 현황(2019년 기준)

구분	1인당 여행지출		방일 외국인여행자 수		방일 외국인여행소비액	
	엔/인	증감률(%)	명	증감률(%)	억 엔	증감률(%)
전체	158,531	3.6	31,882,100	2.2	47,331	7.2
한국	76,138	-2.5	5,584,600	-25.9	4,240	-27.8

*전체는 크루즈객을 제외한 일반여행객

출처: 観光庁, 「訪日外国人の消費動向」, 2020.

〈표 11〉 방일 한국인의 지역별 숙박 현황

(단위: 명박, %)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한국	오사카부	도쿄도	후쿠오카현	홋카이도	오кина와현	기타
2018	2,543,520	1,678,220	1,564,650	1,374,200	1,230,010	3,564,100
2019	1,751,190	1,718,800	1,332,410	1,111,980	950,110	2,850,920
증감률	-31.15	2.42	-14.84	-19.08	-22.76	-20.01

출처: 観光庁(2020), 「宿泊旅行統計調査報告」.

특히 지역별로는 후쿠오카, 오이타, 사가 등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숙박객 수가 많은 규슈 지역, 오사카나 도쿄 등 대도시권,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한국인 방문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총합연구소는 방일 한국인이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준으로 급감

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까지 60%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간사이 지역 인바운드 소비가 2019년 대비 9%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대략 1,000억 엔으로 간사이 GRP의 0.1% 정도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¹²

한국인 감소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 간 관계 악화와 별도로 지역의 우호성을 강조하는 프로모션 캠페인의 추진이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청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8월 신치토세 공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환영 이벤트를 실시하여, 유바리 멜론 젤리 등 기념품을 배포하였고,¹³ 오키나와현은 긴급 프로젝트로 9월 말 한국 여행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홍보를 강화하였다.¹⁴

두 번째는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한국인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 이어지면서, 산업적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증가하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씨트립과 연계협정을 맺는 등 중국, 대만, 아세안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으로 전환되었다.¹⁵

2) 한국 관광부문 영향

2019년에는 한국인의 방일 여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일본인의 방한 여행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파악된다. 첫째, 한국인의 방일 여행이 최근 급증한 반면, 일본인의 방한 여행은 2012년 이후 감소한 바 있다. 둘째, 한일 관계 악화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시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불매운동이 바로 관광부문으로 확대되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관광

12 若林厚仁, 「訪日韓国人の減少が関西経済に及ぼす影響」, 『リサーチ・アイ』,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 2019.

13 NHK, 2019. 8. 19. 「韓国人観光客を北海道の職員が歓迎 新千歳空港」.

14 朝日新聞 沖縄タイムス, 2019. 10. 9. 「海きれいだけど…コンセント少ない韓国旅行社」.

15 홋카이도청 경제부 관광국 담당자 인터뷰(2019. 11. 7.). 2019년도에 중국은 신규 취항 항공노선 증편으로 인한 항공좌석 공급량 증가, 1월부터 실시된 개인비자 발급 요건 완화에 따라 방일 여행객이 증가 경향에 있었으며, 대만 역시 지방공항 신규취항 또는 전세기 운항 증편으로 인한 항공좌석 공급량 증가로 방일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홍콩, 태국도 증편에 따른 항공좌석 공급 증가, 일본 도호쿠 지역 홍보 확대에 따른 방일관광 프로모션 효과로 방일 여행객이 증가하였다.

분야로 확산되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차를 반영했을 때, 방한 일본인의 본격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날 시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겹쳤기 때문에, 한일 관계 악화가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한국에서 나타난 관광부문 영향은 방한 일본인 증감에 따른 영향보다는 한국인의 해외여행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아웃바운드 관광부문에서의 영향이 컸다. 항공부문에서는 이용객수의 감소와 더불어 한일노선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아웃바운드 여행사 역시 예약 감소로 인해 피해가 나타났다. 여행사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항공회사가 일본노선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 타 지역 운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여행사 역시 일본담당부서를 축소하고 동남아시아 담당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었다.¹⁶

4. 코로나19 이후 한일관광 동향

1) 코로나19 전개와 관광 동향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출현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 3월 WHO 팬데믹 선언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0월 22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5,543명으로 하루에 10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으며, 사망자는 453명으로 집계된다. 한국의 경우는 2월 1차 확산, 8월 2차 확산 시기를 겪었으며, 10월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진행되었으나, 11월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차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0월 22일 기준 확진자 9만 4,524명으로 하루에 약 59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으며, 사망자는 1,685명으로 집계된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이후 확진자가 급증됨에 따라, 4월 7일 긴급

16 A여행사, B여행사, C여행사 인터뷰(2019. 10.).

〈표 12〉 코로나19 관련 주요 관광 동향

	한국	일본
2019. 12.	중국 우한 코로나19 발생	
2020. 1.	17일 중국 우한시 여행경보 2단계 발령 20일 첫 확진자 발생(중국 여성)	16일 첫 확진자 발생(일본 거주 중국 남성) 24일 중국 후베이성 방문 자제 권고
2020. 2.	1차 유행 (대구 신천지)	3일 일본 크루즈 선박 요코하마항 격리 13일 첫 사망자 발생 27일 대구시 및 청도군 체류자 입국 금지
2020. 3.	12일 WHO, 팬데믹 선언	
	7일 마스크 5부제 시행 9일 일본 비자 무효화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2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개학 연기) 23일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10월 현재 지속)	5일 한국인 비자면제 정지 및 입국자 14일 격리조치 24일 도쿄 올림픽 1년 연기 결정 25일 해외 위험정보 레벨 2 불요불급 도향 자제
2020. 4.	1일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9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 전환 시작	1일 무료 마스크 배포 7일 긴급사태 선포
2020. 5.	5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2차 유행 (이태원 클럽)	14일 대부분 지역 긴급사태 해제(도쿄 등 8개지역 제외)
2020. 6.	1일 마스크5부제 폐지	
2020. 7.		관광지원 캠페인 'Go to Travel'(도쿄 제외)
2020. 8.	18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숙박-여행쿠폰 예약 개시 및 중단	26일 감염증위험경보 레벨 3(도향중지권고)
2020. 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Go to Travel' 전국 확대(도쿄 포함)
2020. 1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8일 한국 기업인 특별입국 시행
2020. 11.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1.5단계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1.5단계 코로나 백신 확보 협상 진행	일부 지역 영업시간 단축 요청(삿포로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겨울철 가이드라인 배포(마스크 회식 등) 임상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사전구매
2020. 12.	8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3차 유행 지속(12일 확진자 수 1,030명 기록)	2일 올림픽조직위원회 코로나 대책 회의 중간정리 발표(코로나 대책비 1천억 엔) 11일 코로나19 대책 분과회-관광지원 캠페인 일시 정지 제언(스가 총리 지속 발언) 3차 유행 지속(11일 확진자 수 2,781명 기록)

사태가 선포되었고 골든위크 이후 해제되었다. 이후 일본에서 영업시간 단축 등 조치는 지자체 확산 상황에 따라 국지적으로 전개되었는데, 11월 이후 겨울철 3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관광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이슈는 첫째, 양 국가의 입국 제한 실시 이슈, 둘째, 관광여행의 침체와 정책대안, 셋째, 코로나 방역 지침과 여행 트렌드의 변화, 넷째, 관광업계 침체 극복을 위해 제안된 ‘여행 쿠폰’ 정책의 행방이다.

2) 한국의 관광 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세계 각국의 이동 제약이 확대되면서 방한 외국인 여행객은 전년대비 90% 이상 감소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고, 한일 양국은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으로 전환되었는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을 포기하였다는 응답은 49.3%이며, 그중 상당수가 국내여행으로 조정하였다고 응

〈표 13〉 방한 여행객 및 출국자 수 현황(2020년 1~8월)

(단위: 명, %)

구분		방한 여행객		방한 일본인		한국인 출국자 수	
		인원 수	증감률	인원 수	증감률	인원 수	증감률
2020	1월	1,272,708	15.2	203,969	-1.2	2,513,030	-13.7
	2월	685,212	-43.0	211,199	-0.9	1,046,779	-60.0
	3월	83,497	-94.6	8,347	-97.8	143,366	-93.9
	4월	29,415	-98.2	360	-99.9	31,425	-98.6
	5월	30,806	-97.9	413	-99.9	37,802	-98.4
	6월	36,938	-97.5	498	-99.8	48,353	-98.1
	7월	61,012	-95.8	755	-99.7	65,936	-97.5
	8월	68,797	-95.7	1,275	-99.6	88,888	-96.3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표 14〉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 조정-한국

구분	응답률(%)
해외여행을 포기	49.3
코로나19 감염 확산 종식 이후로 미룸	33.3
코로나19 감염 확산 종식 이후 국내여행으로 조정	8.6
현재 국내여행으로 조정	7.8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여행 조사」, 2020(5월 실시)

〈표 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 부문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일자리 창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소비 할인 쿠폰	3~4만 원 숙박 할인 쿠폰 290억 원(100만 명), 공모선정된 우수 국내관광 상품 선 결제 시 30% 할인 972억 원(15만 명) 등
관광업계 지원	무담보 특별융자 시행(총 1,000억 원), 관광기금상환유예(총 2,000억 원), 일반융자 규모 확대(4,800억 원 → 5,250억 원),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등급제도 유예,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수수료 감면, 방역물품 지원 등

출처: 문체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체부 3차 추경' 2020. 7. 3.; '코로나 19 대응 관광업계 지원 대책' 2020. 4. 14.

답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기에는 국공립 박물관이나 휴양시설 등도 폐장되는 등 국내여행 자체도 축소경향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여행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4월에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융자 및 고용유지 지원 등이 실시되었으며, 7월에는 소비할인 쿠폰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었다.

3) 일본의 관광 변화

일본 역시 상황은 유사하여 방일 외국인 여행객 및 일본인의 해외여행은 전년대비 99%까지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여행도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일본 정부 역시 외국인 여행 감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여행으로 여행수요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표 16〉 일본 입국 여행객 및 출국자 수 현황(2020. 1.~8.)

(단위: 명, %)

구분		방일 여행객		방일 한국인 수		출국 일본인	
		인원 수	증감률	인원 수	증감률	인원 수	증감률
2020	1월	2,661,022	-1.1	316,812	-59.4	1,380,762	-4.9
	2월	1,085,147	-58.3	143,896	-79.9	1,316,820	-14.2
	3월	193,658	-93.0	16,700	-97.1	272,697	-85.9
	4월	2,917	-99.9	299	-99.9	3,915	-99.8
	5월	1,663	-99.9	18	-100.0	5,539	-99.6
	6월	2,565	-99.9	122	-100.0	10,663	-99.3
	7월	3,782	-99.9	294	-99.9	20,295	-98.8
	8월	8,700	-99.7	700	-99.8	37,100	-98.2

*8월은 추계치.

출처: JNTO, 「訪日外客数」, 2020.

〈표 17〉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의향-일본

구분	응답률(%)
이전 이상으로 가고 싶다	14.5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가고 싶다	50.1
이전보다 조금 여행을 가고 싶다	8.7
전혀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	3.2
이전에도 여행을 별로 가지 않았다.	11.3
모름	12.2

〈표 18〉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해외여행 의향-일본

구분	국내여행(%)	해외여행(%)
가고 싶다	69.8	27.4
당분간(2년 정도) 가고 싶지 않다	25.7	41.6
종식되어도, 가고 싶지 않다	0.9	6.2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관계없이 가고 싶지 않다	3.4	23.9
무응답	0.2	0.9

출처: JTB, 「JTBF旅行意識調査トピックス,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流行下の日本人旅行者の動向」, 2020. 2020. 5.~6. 조사.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택트 문화 확산과 함께, 실내보다는 야외 액티비티가, 혼잡한 지역보다는 여유로운 지역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제기되었고, 재택근무의 확산 및 정착을 계기로 위케이션, 블레저 등이 신조어로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여행행태의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당면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되더라도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9〉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고 싶은 여행지 및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일본 (단위: %)

가고 싶은 지역		가고 싶지 않은 지역	
여행한 적이 없는 지역	44	공중위생이 철저하지 않은 지역	54.6
원래 예정하고 있었던 지역	41.8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역	41.7
이전에 가 본 적이 있어서 애착이 있는 지역	34.7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많았던 지역	35.9
사람이 밀집하지 않은 지역	20.6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33.6
공중위생이 철저한 지역	20.3	특별히 없다	12.7
숙박이나 지역특산물, 시설 등 할인이 있는 지역	11.7	지금까지 여행한 적이 없는 지역	2.2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던 지역	8.8	기타	1.2
기타	1.3	무응답	6.7
무응답	5.6		

출처: JTBF, 「JTBF旅行意識調査トピックス,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流行下の日本人旅行者の動向」 5-6월 조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본인의 전반적인 여행이 감소되면서, 일본에서도 관광업계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 주요 여행사의 취급액은 급감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마찬가지로 실질 무이자 및 무담보 융자제도를 확대하고, 고용 지속 지원 및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였다. 관광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시설 중 약 90%가 자금조달 지원사업을, 약 80%가 고용조정조성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행업계에서도 지원제도는 약 80%, 고용조정조성금도 약 70%의 사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4월 1차 보정예산에서 ‘Go to Travel’ 사업이 전면적으로 개진되었고, 국내여행 수요 진작을 위해 7월 22일부터 국내여행의 여행비용을 35% 할인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¹⁷ 한국의 경우 여행 쿠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일본은 10월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외되었던 도쿄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17 숙박 및 당일여행대금의 15% 상당금액을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공통 쿠폰으로 부여하는 캠페인으로, 국가의 지원액은 1인 1박당 2만 엔이 상한(당일여행은 1만 엔 상한), 연박 제한이나 이용횟수의 제한은 없다.

[표 20]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비비 및 보정예산 일본 관광청 사업

시기	구분	주요사업
2020. 3.	예비비 편성	관광지 다각화 등을 위한 매력적인 잠재콘텐츠 조성(7억 엔)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용환경 정비 긴급대책 사업(19억 엔) JNTO에 의한 정확한 정보 발신(10억 엔)
2020. 4.	1차 보정예산	Go to Travel 사업(국내여행 수요환기)(1조 6,794억 엔) 유객 다각화를 위한 잠재적 콘텐츠 조성(102억 엔) 방일 외국인 수용환경 정비 긴급사업(52억 엔)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요회복을 위한 프로모션(96억 엔)
2020. 7.	예비비	피해 관광지의 고객 다각화 및 수익력 향상 사업(3억 엔)

자료: 観光庁, 「令和2年度予算」, 2020.

그 이유로는 우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음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온라인 등교 등 엄격한 방역 대책을 우선시하였으나,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5월 25일 해제된 이후 방역과 경제의 양립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2월 11일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책 분과회’는 단기간에 3차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감염이 확대되는 지역에서는 ‘Go to Travel’, ‘Go to Eat’ 사업의 일시 정지를 제언하였으나,¹⁸ 일본 정부는 전면 중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관광정책의 차이는 한일 양국에서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우선 한일 양국의 여행행태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개별여행 중심으로 국내여행은 여행사를 거치는 비율이 낮고, 숙박여행 등도 플랫폼 기업을 통한 예약이 중심이며, 주요 이동수단은 자가용이므로, 국내여행 진흥이 곧바로 항공업이나 여행업의 영업손실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반면, 일본은 비즈니스 여행 등 여행사를 거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온천관광지’ 등 관광이 주요 산업으로 정착된 지역이 존재하여,

18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分科会, 「今後の感染の状況を踏まえた対応についての分科会から政府への提言」, 2020. 12. 11.

[표 21]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 주요 여행사 총 취급액 변화

(단위: 억 엔)

구분	2019			2020		
	해외여행	국내여행	외국인여행	해외여행	국내여행	외국인여행
1월	1,411	1,842	133	1,286	1,748	145
2월	1,657	2,047	158	1,298	1,745	87
3월	1,888	2,552	274	283	656	31
4월	1,819	2,321	282	0	65	1
5월	1,661	2,519	231	10	103	21
6월	1,739	2,274	199	205	437	16

출처: 観光庁, 『観光白書』, 2020.

지역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정착된 ‘응원 여행’ 경험, 즉 관광여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험 역시, 수요환기 캠페인을 지지한 하나의 요인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도쿄 올림픽’ 개최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방역만을 중심으로 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웠다 할 수 있다. 2020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로 연기되었으나, 그 비용은 코로나 대책비만으로 1,000억 엔이 추가되었으며, 연기에 따른 시설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5,940억 엔이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장 관람이 제한된다면, 수익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부담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방역뿐 아니라, 경제적 고려, 그리고 지역 내 관광산업의 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4) 한일 관광교류 전망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일 관광교류의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일 관광교류는 양국 모두에서 중점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관광교류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20년 11월 이후 계절적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백신의 승인 및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관광의 장벽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달성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유전자 검사나, 백신 접종증명서 등의 서류가 부가된 형태로 국제여행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당분간은 양국 모두에서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 세계적인 국제여행이 어렵더라도,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시행에 따라 한일 양국 간의 관광여행이 확대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트래블 버블이란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가 상호 여행 안전지대를 지정하여 국가 간 협의를 통하여 격리를 면제 또는 완화하여 상호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현재 호주-뉴질랜드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¹⁹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트래블 버블에 관광목적의 여행까지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0월 8일 일본은 한국 비즈니스 여행객에 대한 특별입국을 시행하였으며, 같은 달 30일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코로나19 관련 위험 등급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었다. 그러나 비즈니스 트랙 역시 유전자검사(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격리면제 기간 동안 자가격리,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한일 간 트래블 버블의 절차가 보다 완화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방역의 관점에서 한일 관광교류 전망은 어두우나, ‘관광’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그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20대를 중심으로 정치와 문화소비를 별개로 간주하며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다. 2004년 ‘겨울연가’로 확대된 한류 붐이 K-pop²⁰과 넷플릭스의 한국

19 신용석,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20 JYP 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의 ‘니지 프로젝트(Nizi Project)’ 등.

드라마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류붐은 향후 일본인의 방한여행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1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방일여행 유치 전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일본여행 수요도 일본 수출규제 분위기에서 반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관광산업계는 ‘민간교류’를 통해서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올림픽과 관광이 만난다면 정치적 대립의 극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이번 일본 수출규제 이후 확산된 일본여행 자제 분위기는 과거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방일 여행수요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한국인의 방일 여행은 향후 한일 관계의 행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5. 결론

이 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한일 관광부문에서 나타난 변화를 관광행태, 관광산업, 관광정책의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일갈등이 관광영역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된 양국 간의 교류, 특히 방일 한국인의 증가가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기 전까지 양국 간의 교류는 방한 일본인이 방일 한국인보다 많았으나, 이후 방일 한국인이 서서히 증가하여, 2014년을 기점으로 양국 교류 인원이 역전되었다. 방한, 방일여행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는 한국으로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프트 파워’ 발현이, 일본으로서는 전반적인 ‘방일 외국인’의 증가에 힘입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자신감이 그 배경에 놓여 있었다.

일본수출규제 이후 나타난 관광산업 영역의 피해는 양국 관광산업 구

조²¹를 반영하며 제기된다. 방일 한국인은 대부분 개별여행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 관광산업에서의 영향은 일본 여행업보다는 숙박업 부문의 피해에 크게 반영되었고, 특히 한국인 숙박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어려움이 컸다. 방일 한국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방일 외국인 수 및 방일외국인 소비 지출규모는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대만, 태국, 홍콩 등의 여행객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월별로 살펴보면, 방일 한국인 감소 폭이 확대되어 지속된 10~12월의 경우 전체 방일 외국인 수도 감소하고 있어서, 만약 코로나19 영향이 없이 한국인의 방일여행 자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면 그 영향은 더욱 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방일 한국인 감소에 따른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방일 한국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환대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는 형태로 대응이 진행되었는데, 다만 한국시장과 중국시장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의 선호하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쇼핑 품목 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의 어려움 역시 존재했다.

한국의 관점에서 방일여행 감소는 대체여행지 확대로 전환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해외여행객의 여행목적지는 베트남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항공노선 역시 일본노선에서 동남아노선으로 전환이 도모되었다. 여행업의 경우도 원래 개별여행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었던 일본상품을 동남아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원을 재배치하는 형태로 수요 변화에 대응하였다.

한편, 2020년 2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관광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자유로운 국경의 이동은 더는 불가능하여, 한일 양국에서 외국인 여행객은 전년대비 90% 이상 감소하였다. 관광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명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

21 한일 양국에서 관광산업의 경우 이전에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양국의 LCC(저가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산업과 일본의 숙박업 및 쇼핑시설, 한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업 등의 규모가 보다 커지게 되었다.

동안 위기관리 정책은 위기 발생 시 기업지원, 고용 지속 지원, (재난지역으로 의) 관광여행 촉진, 시장 다변화 등의 전략으로 단기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전 세계의 공통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관광분야 위기관리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경은 폐쇄되었으나, 국가 간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위기관리 정책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의 과제 공유 및 극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